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Korean Catholic Church Sunday Bulletin

2020년 12월 27일 (제 1974 호)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집회서 3:2-6. 12-14 제2독서 콜로새서 3:12-21 복음 루카 2:22-40

◎말씀 < 코로나 시대를 살며 성가정을 생각합니다. >

주님 성탄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성가정 축일을 지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한 가정을 통한 성탄이라는 사건에는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의미도 담겨있지요. 성탄과 연결된 오늘 축일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모든 가정에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가정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은 더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함께 사는 가족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실시되었던 '아동행복 생활시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하루 중 가족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평균 13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불행한 현실이었지요. 그런데 코로나19로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모두 더 행복해졌을까요? 많은 이들이 가족 구성원 간에 새로운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있다고 하소연 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이 만들었던 가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예수님 탄생 때부터 곧장 피난을 가야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지요, 상상하기도 힘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이를 승화시켰던 가정이었지요. 사랑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며 서로의 자리를 존중했던 가정이 바로 마리아 요셉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가정이었습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겪는데 그럴 때 가족마저 비난하고 외면한다면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있을까요? 가족들의 지지마저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아껴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모두가 가족이 있어 행복한 삶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기에 더 행복한 삶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점점 더 지쳐가기 쉬운 요즘 서로에게 삶의 짐이 아닌 삶의 힘이 되어주는 가정, 더욱 섬기는 삶으로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 외롭고 나약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더 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정 성화 주간'은 연말과 연시가 함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주간이기도 하지요. 가족과 함께 차분히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해주고, 새해 소망과 덕담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2월29일(화)	성탄 팔일 축제 제5일		교 무 금 주일헌금	\$ 4,015.00 \$ 966.00
12월30일(수)	성탄 팔일 축제 제6일		미사예물 성소후원	\$ 210.00 \$ 185.00
12월31일(목)	성탄 팔일 축제 제7일		사회복지 성물방	\$ 190.00 \$ 300.00
1월1일(금)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기타수입 교구2차헌금	\$ 1,120.00 \$ 359.00
1월2일(토)	성 대 바실리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기념일		합 계	\$ 7,345.00
1월3일(일)	주님 공현 대축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0명 성인: 58명
교무금 봉헌자	이재덕. 박용호(11-12)김승제(9-12)김옥동(8-12)김혜주(6-12)염혜진. 장영수(1-12)장순옥(5-8) 임채봉. 이서향(9-10)염상보(11-1/21년)윤태옥(5-5/21년)성영진. 김채홍. 남필레(12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 -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불태워야 할 신앙의 연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석하여 그 힘을 얻고, 지혜와 인내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특히 그리스도와 긴밀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사랑, 사랑의 끊임없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평신도교령 4항 참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전통적으로 향주덕이라고 합니다. 향주덕이란 ‘주님을 향한’ 덕이라고 해서 대신덕이라고도 부릅니다. 향주덕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813항)

믿음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자유로이 맡기는 것입니다.
 곧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 ‘저는 믿습시다’ 라고 나의 모든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과,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우리에게 믿으라고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게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14항 참조). 믿음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절대적인 하느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느님 안에 살기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희망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의 행복한 하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817항)

영원한 행복을 바라는 희망은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몸이 병들고 아프거나, 꿈이 좌절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곳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희망은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 (골로 3,14)이고, 모든 덕의 바탕이며, 덕들을 연결하고 질서를 지어 주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27항). 따라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닦아야 할 최고의 덕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이러한 사랑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1코린 13,7)

그러므로 ‘**믿음**’ 과 ‘**희망**’, 그리고 ‘**사랑**’ 은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갈 때까지 간직하고 불태워야 할 신앙의 연료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감뉘음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씌시다.” (1테살 5,8)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렛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신상철.사무엘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박종규,바오로 영혼	최정신.데레사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생	유가브리엘라 영육건강	전정옥.울리안나
생	장영란.젼마 영육건강	임정남.실비아	생	셋별Pr.단원들 영육건강과 가정	전정옥.울리안나
생	유지석.사도요한 영육건강	정의의모후Pr	생	이호순.수산나 건강회복	류가브리엘라

간
장
종
지

◎영광◎

당신이 내게 오시네, 한겨울의 함박눈으로
 겸손의 참 모습으로 땅에까지 내리시는 영광.
 당신이 태어나심으로 내 세상 다시 시작되었네.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내 죄 모두 씻어 주었네.

마종기.노렌조 시인/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Print N Signs</p> <p>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미사안내

주일미사:오전10시(교중미사) 야외미사

(성당 FM주파수 107.9)

개인 차량안에서 안전하게 미사전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후 자발적인 정리정돈에 감사드립니다.

평일미사:온라인미사 (문의:각구역장)

오후6시(동영상), 오후7시30분(Zoom)

금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미사 없습니다.

집전:김원현.베드로 본당주임 신부님

2.연말연시 전례안내

송년미사 :31일(목)오후7시30분(Zoom)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1월1일(금)오전10시

3.성탄기념 사랑의 쌀 나눔 (사회복지부:50포증정)

일시:27일(일) 교중미사직후

대상:요셉회.안나회 어르신

방역상 건강상 못오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사목회에서 전달해드립니다.

4.교무금봉헌(2020년도)

어려우시더라도 금년도 교무금은 완납바랍니다

5.St.Mary's 천주교묘소 한국섹션 완공안내

묘소완공:21년1월(예정)/안장:21년2월부터가능

선종하신 가족을 모실 교우분은 연령회장님께

미리 신청바랍니다. (신부님과 일정조율 필요)

문의:고원석.바로로 연령회장(916-813-4440)

6.2021년도 달력 배부중 (사무실)

기준:각가정당 1부 / 배부:금~일(11시~16시)

7.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이호순(\$1,000) 장애익(\$100)

최글라라(\$20)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교중미사)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미사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Check 발행시: ST. J.H.C.)

◆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전례봉사

예수.마리아.요셉
성가정축일(12월27일)

주님공현대축일(1월3일)

주님세례축일(1월10일)

연중제2주일(1월17일)

복사

최준우.루카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최진호.다니엘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